근대 소설의 형식을 확립한 18세기의 기념비적 명작

글_주진호 삼우반 편집팀장

《톰 존스》(전2권) 헨리 필딩 지음 | 류경희 옮김 | 삼우반 | 1권 680쪽, 2권 712쪽 | 각권 값 20,000원

《톰 존스》는 재미있다. 《달과 6펜스》의 작가 서머싯 몸이 이 작품을 세계 10대 소설로 선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에 따르면 독자들이 흥미를 느낄 수 없는 소설은 아무 소용이 없다. 소설의 목적은 무엇보다 독자들을 즐겁게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톰 존스》는 서머싯 몸이 뽑은 10대 소설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번역된 작품이다(단, 30년 전에 《톰 존즈》라는 제목으로 300여 쪽의 축약본이 나온 적은 있다). 참고로 나머지 작품은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스탕달의 《적과 흑》, 발자크의 《고리오 영감》, 디킨스의 《데이비드 카퍼필드》,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 멜빌의 《모비 딕》,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등이다.

헨리 필딩은 매우 인간적인 작가였다. 그는 명망 있는 집안 출신으로 학력 좋고 잘생기고 위트 넘치고 연애도 잘하는 인물이었다. 그러다가 극작가로 활동하던 청년기에는 무척 가난해져서 마차꾼으로 하루하루 먹고살 것인가, 글쟁이로 먹고 살 것인가로 고민했다고 한다. 그토록 사랑했던 부인과도 고생 끝에 병으로 사별해야 했다. 궁핍한 생활을 체험한 탓인지 당시로서는 드물게 하류층의 삶을 생생히 묘사했는데, 그는 소설가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로 상류층과 하류층의 삶을 아울러 이해하는 보편성을 특히 강조했다.

《톰 존스》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비평적 에세이와 본래의 이야기가 그것이다. 전체 18권 중 각권의 서문에 에세이가 삽입되어 있는데, 소설이란 무엇을 대상으로 하며, 어떻게 창작해야 하고, 소설과 다른 장르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 자체로 훌륭한 문학비평이고 문학사적으로 의미 있는 글이지만, 읽기에는 수월치 않다. 반면에 이야기 부분은 막힘없이 술술 넘어간다. 버려진 아이 톰이 이웃집 소녀 소피아와 어떻게 만나 사랑하고, 무슨 이유로 헤어져 방랑을 떠나게 되고, 어찌어찌하여 다시 만나 행복하게 되는지…. 한 편의 드라마처럼 속도감 있게 펼쳐진다.

《톰 존스》는 우리 출판사에서 4년간 공들인 작품으로, 특히 옮긴이의 끈기와 노력이 아니었다면 빛을 보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냥 읽어 보는 데도 여러 날이 소요될 정도로 분량이 방대해서 편집 단계에서 어려움이 없지 않았지만, 작품이 워낙 재미있고 수시로 밑줄을 쳐 가며 읽어야 할 만큼 울림이 있는 경구들이 풍부해 그 자체로 즐거운 작업이었다.

"작가란… 자신을 잔치를 베푸는 잔칫집 주인이 아니라 돈만 내면 모든 사람들을 환대해 주는 대중 여관(음식점)의 주인으로 생각해야 한다"(1권 1장). 독자들의 흥미를 돋울 수 있게 세심하게 배려하여 글을 써야 한다는 말인데, 필딩은 《톰 존스》 곳곳에서 이를 실천하고 있다. 그러니 더욱 재미있을 수밖에….

시집의 꿈을 깨뜨리다

책이 될 것 같지가 않았다. 아는 이를 통해 건네받은 초고는 시 이십여 편과 자전적 에세이 열댓 편이었다. 시인 아닌 이의 시에다 사적인 삶의 편린들. 출판사가 탐낼 만한 조합은 아니었다. 나중에 책머리에서 필자 스스로 말했듯 "그다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기도 했고.

서태영 변호사. 법원 민주화 과정에 징검돌 하나를 놓은 분이다. 1985년 판사 시절 〈법률신문〉에 '인사 유감' 이란 글을 써 사법부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대법원장의 진노를 사 서울 발령 하루 만에 지방으로 쫓겨 갔고, 이 일은 다른 요인들과 어우러져 대법원장 탄핵소추 발의로 이어졌다. 주위 권유에 따라 필화의 기록을 남기고자 글을 시작했으나, 쓰다 보니 근년에 시작(詩作) 공부를 하면서 쓴 작품과 그에 관련된 삶의 글들을 묶고 싶어졌다고 했다. 원고의 초점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었다.

출판사에서 원고를 검토하는 기준은 필자의 욕구나 희망과는 거리가 있게 마련이다. 내용의 공공성이나 사회적 가치, 독자 관심도 등을 고려한 결과, 그 상태로는 책이 되기에 모자란다고 판단했다. 한데, 내용 중 마음 씌우는 부분이 있었다. 가족에 대한 진솔한 회상이었다. 일본의 전쟁에 끌려 나가게 되자 생환을 보장한다는 흠치교를 믿게 된 아버지, 훗날 의사 약사 판사가 될 자식들에게 공부는 그만두고 시계수리 등 기술을 익히라고 종용한 일, 어머니에 대한 상습적 폭력을 보다 못해 아들이 벌인 도끼 시위, 학업의 후원자 작은아버지에 대한 양가적 감정….기억의 풍경들은 개인사를 훌쩍 넘어서고 있었다. "어른에 대한 무섬증"을 지니고 자란 아이가 법을 배우며 갖게 된 신념은 무엇이었을까. 판결들은 어땠을까. 못내 궁금했다.

필자와 협의했다. 시 파트를 포기해야겠어요. 자전 부분 앞에다가 재판과 사람이 얽힌 이야기, 법조계 풍경을 보강하면 책이 될 것 같습니다. 망설임 끝에 필자가 동의했다.

너덧 달 뒤에 일차 원고가 왔다. 짐작한 대로, 그늘 속 못난이들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 있었다. 생색내는 일 없이 말이다. 판사 시절 그의 원칙과 판결은 따스하고 순박했다. 서 판사의 법정에서는 가난해서 변호사를 못 쓴 사람이 더 유리하다는 말까지 있었다 한다.

보완용 주제들을 계속 의논하면서 너덧 차례 원고가 오가고, 퇴고에 두세 달을 들인 뒤 50여 편의 글이 확정됐다. 일제풍의 법정 습속이 현대식으로 바뀌어 가는 이야기(원님 같기도 하고 조폭 같기도 했던 판검사들!), 이른바 전관예우와 '봐준다' 는 것, 소송 중독자들, 판사들의 양형(量刑) 고민과 '치받기', 사시 합격자의 고질인 왕자병, 대형 마트처럼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파는 로펌들, 유신시대의 정찰제 판결, 피고인에게 술을 먹이려는 휴머니스트들, '인사 유감' 필화의 속내…그의 글들에선 소송과 재판에 관한 상식이 종종 뒤집어졌다. 정의가 질 때도 많고 유죄와 무죄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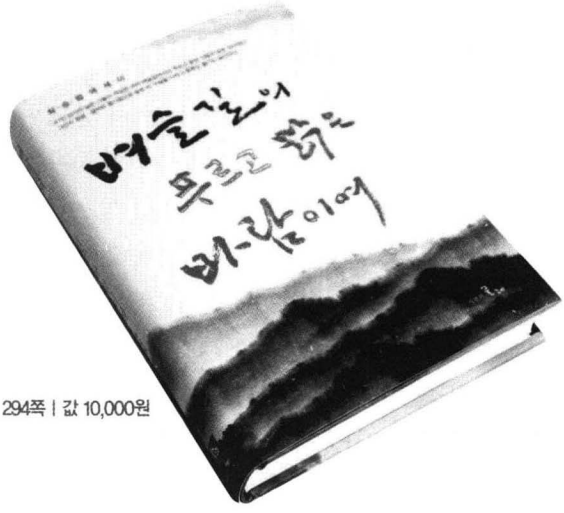
큰 욕심을 부린 책이 아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온 시대의 초상에 몇 개의 점과 획을 더하기를 바랐을 뿐이다. 아담한 스케치북 또는 스테인드글라스 같은 책으로 인식된다면 좋겠다. 역사서 《사쿠라가 지다 젊음도 지다》와 심리서 《나만 모르는 내 성격》, 말글에 관한 책 《글쓰기 만보》 《한국어 용법 핸드북》을 주로 만들어 온 모멘토의 새로운 경험이기도 하다.

《피고인에게 술을 먹여라》 서태영 지음 | 모멘토 | 253쪽 | 값 10,000원

글 _ 박경애 모멘토 출판사 대표

비바람 치는 현대사회의 삶에서 운치와 여유를 선물

글 _ 권호순 시간의물레 대표



《벼슬길의 푸르고 맑은 바람이여》 최승범 지음 | 시간의물레 | 294쪽 | 값 10,000원

황금빛 가을이 막 시작되는 지난 2006년 9월 18일 고하(古河) 최승범 선생님을 뵈었다. 그동안 지방신문과 잡지에 연재했던 글을 모아놓은 원고를 주시면서, "오늘의 세상살이에서 자신의 일상을 살피는 거울로 삼아보았으면" 하고 말씀하신다. 내놓으시는 원고에는 '고하문예관'(古河文藝館)의 책향(冊香)이 그대로 묻어났다.

원고를 보는 순간, 아! 바로 내가 찾던 원고. 내가 내고 싶었던 책. 원고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대금 연주가 흐르고 난향이 그윽한 화랑에서 동양화를 감상하는 기분이었다. 이 책의 글들은 한 폭의 산수화이자 인물화이다. 이 책의 글들은 비바람 치는 현대사회의 삶에서 내게 운치와 여유를 선물해 주었다. 쉬어가자. 힘든 세상. 힘들지 않은 삶이 어디 있으랴. 예나 지금이나, 동이나 서나,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연예인도, 예술가도, 공직자도, 근로자도 모두 나름대로 힘들다. 바쁜 세상, 잠시 쉬면서 노교수의 해박하고 재미있는 해설을 들으면서 아름다운 산수화를 한번 감상해 보고자 이 원고에 애착을 가졌다.

글 속에 담겨진 분들의 삶은 저자의 말처럼 "벼슬길에서도 푸르고 맑은 바람과 같은 것이었다." 그분들은 청렴결백한 몸가짐으로 맡은 바 구실을 다하고 풍류까지 즐기는 삶이었다지만, 요즘 세상에서 그러한 삶을 영위한 분들을 부러워하고 존경할 자 몇이나 있으랴. 모두가 인기와 지위와 금전을 우러르는 삶을 추구하고 있으니. 옛날의 부는 지금의 경제적 능력으로, 귀는 사회적 지위로, 부귀공명의 이름이 포장만 달리 하고 있을 뿐이다.

대학교수 사회 일각에서 금년의 화두로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남의 탓을 하지 말고 그 까닭을 "돌이켜 자신에게서 찾아보자"고 정했다고 한다.

이 한 권의 책에 그 거울이 담겨 있다. 이 속에 있는 거울에 자신의 얼굴도 바라보고, 옷매무새도 고쳐보고, 그 속에 담긴 마음까지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가져보자. 그리하여 브레이크 없이 어디론가 쏜살같이 달려가는 삶을 잠시 정지시키고 가만히 응시해 보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서양의 옛 분들의 명상록이나 수상록들, 그리고 동서양 위인들의 전기만이 현대인의 삶을 풍부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이 책이 조선시대라는 특정한 시대와, 요즘으로 하면 도지사를 역임한 분들이라는 특정한 분들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옛 어른들의 실제 삶의 모습은 현재를 사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명상하도록 한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건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건 그저 평범한 일반 사회인이건 배우는 학생이건, 누구에게나 읽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책이다.

바람 불고 봄비 내리는 날 따뜻한 화랑에 들어가 그림을 감상한다고 생각해 보자. 얼마나 운치 있고 여유 있는 삶인가.

고단한 삶에 지친 여성들에게 보내는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

먼저 사랑플러스를 소개하는 것이 순서에 맞을 듯싶다. 두 책을 낸 동기가 분명해질 테니까. 사랑플러스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성회복과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을 다룬 이야기를 발굴해 소개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한 세상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사이다. 그 가운데 특히 여성 관련 책은 비판과 문제 제기에만 집중되었던 기존의 페미니즘적인 시각을 뛰어넘어,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시각에서 현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성경적 관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여성들의 삶과 영성에 주목하게 되었고, 현실적인 필요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는 꿈을 갖게 되었다. 그 꿈의 시작이 '현실 속의 여성 시리즈'이다.

《나, 지쳤어》와 《나, 그만 할래》는 그 첫 시작을 알리는 책이다. 이 두 권의 책은 오늘의 현실을 사는 여성들이 내적으로 가장 많은 갈등을 겪고 있으나 해결점을 얻지 못하고 극단의 결론으로 치닫게 하는 '탈진'과 '이혼'을 그 주제로 다룬다.

너무 많이 다뤄졌던 주제, 또 우리와는 다른 환경에서 쓰여 진 책이어서 처음엔 내용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어려웠다. 물론 1차적인 검토를 끝냈지만 '과연 이 책이?' 라는 질문이 편집자의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러나 책을 세밀히 읽고 편집해 가면서 그 생각이 단지 기우였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환경은 다르지만 여성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고민의 동일함을 새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나 할까. 그리고 기뻤다. 삶에 지쳐 죽을 것처럼 탈진해 있거나, 이혼이라는 극단의 결정을 생각하는 여성들에게 휴식과 웃음과 활력을 줄 뿐 아니라, '다시 시작'이라는 '희망'을 주는 책이 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주부이면서 직장생활을 하며 완벽함을 요구받아 온 이 글을 쓰는 필자도 '맞아! 정말 그래' 하며 무릎을 치면서 공감하고, 같은 슬픔에 마음 졸이면서도 마음에 다시 '희망'이란 단어를 떠올리게 되었으니까 말이다.

《나, 지쳤어》와 《나, 그만할래》는 기존의 책들과는 분명히 차별된다. 책을 읽어가는 내내 상담사와 마주 앉아 있는 느낌이다. 자세하고 친밀하고 유용하며 친절하다. 마주 앉아 고민을 직접 이야기하고 상담을 받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도 한다. 그래서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있다. 휴식이 있고,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풍성한 기쁨이 있다. 다시 좋은 시절로 돌아가 함께 웃을 수 있다.

가끔 이 책을 읽었다는 독자들로부터 꼭 필요한 책이 나왔다는 격려와 또 다른 이에게 이 책을 추천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편집자로서 또 다른 꿈을 꾸게 된다. 모든 여성들이 균형 잡힌 건강한 삶으로 희망과 즐거움의 홈런을 날리는 꿈을… ㅊㅊㄴ

글 _ 김순덕 사랑플러스 편집장

《나, 지쳤어》, 《나, 그만 할래》
스티브 스티븐스 · 엘리스 그레이 지음 | 윤인숙 옮김 | 사랑플러스 | 280쪽 | 각권 9,500원